

유착성 관절 낭염의 동반 여부에 따른 회전근 개 전층 파열의 관절경적 치료에 대한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정형외과학교실

박태수 · 최성욱 · 성일훈

목적

유착성 관절 낭염의 동반여부에 따른 회전근 개 전층 파열 환자에 대한 관절경적 치료의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원에서 치료 받은 회전근 개 전층 파열 만을 보인 30예(A군)와 유착성 관절낭염을 동반한 회전근 개 전층 파열을 보인 20예(B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절경 수술 후 평균 추시기간은 3년 11개월(범위, 2년 5개월-7년 4개월)이었다. 임상적 결과 판정은 UCLA 견관절 평가 지수를 이용하였다.

A군에서는 남자 11명, 여자 19명으로, 이중 25예가 우세 견관절에서 이환하였고, B군에서는 남자 8명, 여자 12명으로, 14예가 우세 견관절에서 이환하였다. 평균 파열의 크기는 A군에서는 25 ± 15 mm, B군에서는 17 ± 13 mm이었다. 건봉쇄골 관절과 관절와 상완 관절에 심한 관절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결과

A군의 경우 동통 점수는 수술 전 2.2 ± 1.2 에서 수술 후 9.2 ± 1.2 로, 기능 점수는 4.1 ± 1.8 에서 9.7 ± 0.7 로, 전방 굴곡 점수는 3.8 ± 1.3 에서 5.0으로, 근력 점수는 4.3 ± 0.7 에서 5.0으로 각각 증가되었다. B군의 경우 동통 점수는 수술 전 3.0 ± 1.5 에서 수술 후 9.2 ± 1.2 로, 기능 점수는 4.3 ± 2.0 에서 9.7 ± 0.7 로, 전방 굴곡 점수는 2.4 ± 0.7 에서 5.0로, 근력 점수는 4.0 ± 0.8 에서 5.0으로 각각 증가되었다. B군에서의 능동적 관절 운동 중 전방 굴곡은 수술 전 86.0 ± 21.6 도에서 수술 후 173.5 ± 8.8 도로, 외전은 79.8 ± 32.7 도에서 173.0 ± 6.6 도로, 외회전은 27.0 ± 12.6 도에서 55.3 ± 5.3 도로 각각 증가되었다($P < 0.05$). UCLA 견관절 평가 지수는 A군에서는 93%, B군에서는 95%에서 양호/매우 양호의 결과를 각각 보여주었다. A군과 B군 사이에 paired t-test를 이용한 통계학적 유의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

결론

유착성 관절 낭염 동반 유무와 상관없이 회전근 개 전층 파열에 대한 관절경 수술은 매우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료되며, 특히 수술 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절경 수술은 물론 능동적 및 수동

적 운동을 포함한 조기 재활과 수술 후 동통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 단어: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 파열, 유착성 관절 낭염, 관절경 수술